



NO.2170

하늘 마음



2025년 1월 5일
주님 공현 대축일



로지어 판 데어 바이덴의 <동방박사의 방문>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야 60, 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ㄴ.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준주성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음

그리스도교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준주성범>은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무르며 그 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아래 말씀에 귀기울여 보세요.
어느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을 느낄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요한 8,12)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광명(光明)¹을 받아 깨닫고 마음의 눈이 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삶과 행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2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르침은 모든 성인들의 교훈을 뛰어넘으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춘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숨어 있는 만나(manna)²를 맛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지 못하였기에 복음 말씀을 자주 들면서도 감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이에 맞 들어하려면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생활과 일치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3

삼위일체(三位一體)³에 관한 훌륭한 교리를 가르치더라도 겸손하지 않아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거스른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힘있는 말로 성인이나 의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덕(聖德)⁴을 가꾸며 살아야만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통회(痛悔)⁵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통회하는 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알고 모든 철학자의 이론을 다 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없다면 그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 현세를 경계하며 하느님 나라를 우러러 받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1)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3) 하나의 실체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하느님의 신비

4) 성인의 거룩한 성품을 구성함

5)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

4

그러므로 소멸하고야 말 재물을 찾으며 그 재물에 희망을 두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존경받기를 바라거나 높은 지위를 꾀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후에 큰 벌을 받을 욕신의 욕구를 좇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오래 살기만 원하고 착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현세의 생활에만 몰두하고 나중에 올 후세를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5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코헬 1,8)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형체가 없는 것을 찾아 나서기 위해 힘쓰십시오.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르게 되면 결국 양심을 더럽히고 하느님의 은총을 잃게 됩니다.

이 글은 《준주성범》(©윤을수 옮김, 가톨릭출판사, 1955, 2021)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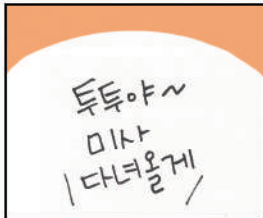
1.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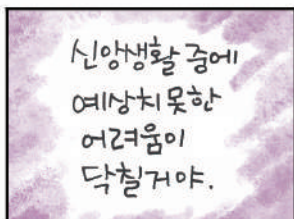
2.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본받고 싶나요?



날으는 C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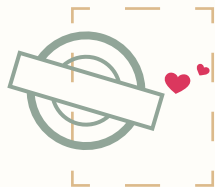
엄현아 안젤라 | zzz-h@hanmail.net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 몰약, 유향보다 더 귀한 선물, '나'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
저는 오늘 한 친구를 소개할까 해요. 제가 서울대교구 대학교사목부에 있을 때 만난 친구가 떠오릅니다. 율리안나라는 친구인데 지금은 어엿한 화가가 되어 자신의 커리어를 충실히 쌓고 있어요. 부임 후 첫 주일미사 때 열심히 성가를 부르면서 새로 온 신부인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던 율리안나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해 연말 율리안나는 서울가톨릭대학생연합회(이하 '서가대연' 표기) 중앙일꾼(봉사자를 지칭하는 서가대연의 호칭)을 하고 싶어 했어요. 율리안나는 전례 팀장을 맡게 되었고, 복음 나눔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인상은 '예쁜 친구인데 참 왜소하다'라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율리안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단백뇨¹가 생겨 수술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장기간 병원에서 지냈고, 결국 학업도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의 우울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아픈 기간 동안 성당에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제일 아쉬웠다고 고백하는 율리안나를 보면서,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느님을 원망만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면서 3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중학교 학업을 시작한 율리안나는 매주 2회씩 하루에 3시간 이상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도 성실하게 살아 미래에 입학해서 저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1) 신장(콩팥)에 생긴 건강문제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것 (출처: Daum 건강정보)

그리고 서가대원 중앙일꾼인 된 올리안나는 행여 건강 때문에 봉사활동에 도움 되지 못 할까? 두려워했지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자신을 일꾼으로 받아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저와 많은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나눈 올리안나에게 많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누구보다도 밝고 성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매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병원에 다니면서도요.

세월은 흘러 2019년, 제가 서울아지트라는 위기청소년 사목을 맡으면서 거리 청소년들을 만나던 때였어요. 어느 늦은 새벽에 올리안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신부님! 방금 신장이식 연락 받고 입원하려 가는 길이에요! 간단한 검사 하나 더 하고 오늘 중 바로 수술할 것 같아요. 너무 기다려 온 순간이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카톡을 보고 전화했는데 영영 울고 있더군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8년의 긴 세월의 기다림과 아픔에도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해서 서가대원 봉사를 하고, 본당에서도 찬양밴드 보컬을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올리안나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리안나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시절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올리안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쓰라고 하네요.)

우리는 오늘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선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찾아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저 별만 보며 생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요. **결국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수님께 드린 것은 황금, 유향, 몰약 이전에 자기 자신 전부를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올리안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교회와 대학생들을 위해 봉사하였고, 주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 기증자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도 살면서 동방박사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 내가 가진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듯,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갑시다.

복음자리

2025년 1월 5일 | 주님 공현 대축일

(마태 2,1-12)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새겨보기

공현 대축일의 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이야기로, 예수님 탄생의 신비와 그분의 메시아적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는 온 민족과 세계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구원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 3가지의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참된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표징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나의 삶에
마치 하느님의 표징으로 다가왔던 사건들은 무엇이 있나요?

 **STEP 1.** 오늘 복음 내용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STEP 2.** 내 삶을 오늘 복음에 비추어 생활 속 이야기를 써보아요.

 **STEP 3.** 주님께 바치는 나의 기도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적어보아요.